

8월, 폭염·태풍·호우·낙뢰 주의하세요

광주시 재난사고 예방지침 제시 소방본부 온열환자 대응체계 강화 태풍 2개 영향 호우 철저한 대비 휴가철 물놀이 익사사고 주의 당부

광주시가 8월 중점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폭염, 태풍·호우, 낙뢰, 물놀이 사고 등을 제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상청 예보 등을 종합해 보면, 이번달에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에선 지난 7월 9일부터 현재까지 폭염 특보 발효가 지속되고 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갑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며 한낮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어지러움증,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도 온열질환자 급증에 대비해 119구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30개 구급대 구급차에 열을 조끼·팩, 생리식염수, 주사세트 등 9종의 폭염 환자 대응 물품을 비치해 온열질환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119종합상황실 전담 구급상황관리사를 통해 응급의료 상담 및 구급차 현장 도착 전 응급처치에 대한 의료정보 안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야외활동, 보행 중 탈수 증상 등이 느껴지는 노약자 등이 소방서 및 안전센터에 방문할 경우 전해질 음료도 무료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온열질환으로 이송한 환자는 총 16명으로, 이 가운데 8월에만 68.8%(11명)가 발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온열질환자 10명(사망 1명)을 이송했다.

시는 또 8월 한달동안 태풍 2개 정도가 우리나

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으로 태풍의 위력도 강해지는 성향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특히 대기 불안정과 발달한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낙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철저히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가 제시한 여름철 재해 예방 행동요령에 따르면 TV·라디오·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많은 비와 강풍에 대비해 주변의 하수구 및 배수구를 점검하는 등 배수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고, 하천변·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지역은 피해야 한다. 실외에 있을 때 낙뢰가 발생하면 자동차, 건물 안, 지하공간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익사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계곡·하천 등에서 물놀이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운동과 함께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영실력을 과신한 무리한 행동이나 음주 후 수영은 절대 삼가야 한다.

광주시는 여름철 재난안전사고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무더위 쉼터 1910곳과 파라솔형 그늘막 424 곳을 배치했다. 또 재난도우미를 통해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하는 등 폭염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특히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피해를 입었던 복구지 집중관리, 배수펌프장 점검 및 가동훈련, 하수구 유입구 시민관리제 등도 시행 중이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달엔 휴가, 나들이객이 많으므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물놀이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구급대원들이 최근 온열질환자 급증에 대비해 폭염 환자 대응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작 6편 선정

제품 개발 ‘고독사 방지 건강케어’ 기획 분야 ‘도로 크랙 탐지 드론’

광주시는 “2021년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작 6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서비스 개발 10건, 아이디어 기획 15건 등 총 25건이 공모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 3건과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 3건을 선정했다. 공모전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 최우수상은 ㈜엘

탑이 제출한 ‘스마트매트를 이용한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건강케어시스템’, 우수상은 푸어드림이 제출한 ‘대기업~소상공인 기부연계 플랫폼’, 혁신상은 HIKEY가 제출한 앱 기반 등산객 보조 서비스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건강케어시스템은 전자센서 스마트매트를 통해 독거노인 건강상태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서는 최우수상은 VIR-TUAL WORLD가 제출한 ‘도로 크랙 탐지 드론’이, 우수상은 김·박·신·이 팀이 제출한 ‘IoT 기술을 적용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혁신상은 유니크가 제출한 ‘개인용 이동수단 경로안내를 위한 스마트 경로’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도로 크랙 탐지 드론’은 드론을 활용해 도로면의 크랙 발생을 감지하고 보수작

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수상자에게는 분야별로 광주시장상(최우수상, 우수상),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혁신상)과 함께 총 18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분야별 최우수상 수상자는 오는 9월 열리는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중앙 본선에 참가할 수 있으며, 중앙대회 수상팀은 창업초기 단계부터 사업화를 위한 홍보 지원, 금융 지원, 맞춤형 컨설팅,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승규 광주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우리지역 청년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안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돼 인공지능허브 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각화동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안전 점검



광주시와 각화동농산물 도매시장 관계자들이 시장 내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중앙도매시장인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매일 오전 9시 담당 직원이 도매시장 내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화재 예방 활동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예방 연구 ‘성과’

변이 자체 분석 시스템 갖춰

로타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위해 각종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대한 연구와 감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주력한 결과, 최근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를 자체 분석할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전장분석시스템(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갖추는 성과

를 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2000년부터 질병청과 매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급성설사질환병원체 감시 사업의 결과물인 ‘한국에서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논문을 세계적 국제학술지인 ‘Vaccines (IF*=4.422)’지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논문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수집한 2만7000여 건의 설사환자 검체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에 따른 로타바이러스 유행률, 유행 시기, 유전자형의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해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 신청하세요

소방본부 선정업소 특별조사 면제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를 신청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최근 3년 기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위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한다. 또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기록 등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를 희망하는 업소는 관할 소방서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현장 확인 및 공정한 심의 과정을 거쳐서 9월께 선정·공표할 예정이다. 또 2019년에 지정된 11개 업소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통해 요건 충족 시엔 인증을 갱신한다.

우수업소로 최종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남수 광주시 방호예방과장은 “우수다중이용업소 선정 제도를 통해 영업주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들도 다중이용업소 방문시 안전관리 인증 표지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임야 661㎡, 지분매매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